

제 9 장

인간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신가 ?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의 설명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찌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마 27 : 39~43).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또 “나는 위대하고 전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 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거의 즉각적으로 “무엇이

라고요? 그가 하나님이라고요? 저 사람은 미쳐버렸음에 틀림이 없군요. 그는 돌아버린 모양입니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세가지 가능성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는 경우입니다. 그는 사기군입니다.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속일 자를 찾고 있는 능란한 사기군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였다면, 그는 자신을 기만하는 자이며 미치광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비정상적이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세째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입에 그러한 말을 집어 넣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이 사기군이 되고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인가

우리는 이제 잠시 동안 첫번째 가능성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기군이요,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장 심각한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아무리 열광적으로 거부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장이나 사기군의 가르침이라고는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음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렉키(William H. Lecky)의 글이며 그는 **지난 세기의 에이레 출신의 역사가입니다. 렉키는 제시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닌 사람이었지만, 『유럽 도덕의 역사』(History of European Morals)**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의 성품은 가장 최고의 덕의 형태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자극적인 실천을 촉구 하였고, 심오한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그의 짧은 3년의 활동적인 생애에 관한 단순한 기록은 모든 철학자들의 논문들과 모든 도덕가들의 교훈들보다 더욱 더 인류를 새롭게 하였고 부드럽게 하였다.

비교할 데 없이 탁월한 예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르침이 거짓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완전하고, 죄없고, 고귀하고, 덕스러운, 그러한 성품을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을 따름입니다.

고 루이스(C. S. Lewis)는 놀랍게 회개한 뛰어난 영국의 저술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사실』(The Case for Christianity)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서 기꺼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만큼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말을 그대로 들어 줄 수가 없다. 그러한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한 사람이면서 예수가 말했던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은 내가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미쳐버린 자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쳐서 돌아버린 사람이든지 또는 더 나쁜 무엇일 것이다. 당신은 바보라고 욕을 하며 그의 입을 막아버리든지, 그를 향하여 침을 뱉으며 모욕을 가하든지, 악마라고 하면서 죽여 버리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이 남아 있다. 그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심을 쓰는 체 하면서 그는 위대한 인간 선생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안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남겨 두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사기꾼이나 협잡꾼이나 거짓말장이의 생애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언어도단입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인가

두번째 가능성은 예수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는 실제로 정신 이상에 걸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기만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논의에서 그를 심리적인 이상 증세를 가진 자로 간주하여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과대망상증의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동안 그의 생애를 자세하게 우리 앞에 펼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예수의 그 심오한 말씀들을 읽어 본 후에도 그분이 정신 이상에 걸려 심리적인 혼란 증세를 보이는 과대망상증의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위대한 정신분석

학자인 피셔(J. P. Fisher)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재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자격이 있는 심리학자들이나 정신 분석 학자들이 발표한 권위있는 모든 논문들을 참고해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논문에 나타난 과도한 표현들을 제거하고 정리하여 종합을 해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유능한 살아있는 작가들이 발표한 아무데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과학적인 지식들을 분명하게 지닐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난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산상 수훈”의 핵심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 수훈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교의 세계는 끊임없이 무익한 갈망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산상 수훈에 나타난 주님 예수의 말씀) 낙관적인 정신건강과 만족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간 삶을 위한 청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정신 이상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한 말씀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미친 사람의 말 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첫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며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 가능성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신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세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 그러한 말씀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격화되었다는 가능성을 솔직하게 살펴 보기로 합시다.

(1) 신격화되어질 수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보다 더 빈약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헬라 세계의 위대한 창시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신격화되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Augustus Caesar)를 신격화시켰다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명화된 그 전 제국에 철권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가난한 나사렛 목수를, 그것도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인이 그러한 사람을 신격화 했다는 것은 내가 백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격화의 후보자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 메시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의 제자들의 생각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멸시하고 모욕하고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증오심에 불타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

은 예수님의 메시아 개념과 완전히 상반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생애를 마치고 난 후 A.D. 66년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격렬한 반대를 일으켰으나 A.D. 70년에 가서 그 민족은 철저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장엄할 정도로 높이 일으켜 세우리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웅장하고 영광이 넘치는 물질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받는 메시아라는 예수님 자신의 생각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3) 그 제자들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신격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들이 확신을 가짐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조그마한 어린 소년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 본 일조차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자신의 꿈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나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일 뿐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형에 처하게 될 때 나는 그것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설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생애를 만들어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예수님의 신성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조작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허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한 일은 불가능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던 자들을 바꾸어 놓은 것이며, 실망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 로마 제국을 회개케 하였고, 헬라와 로마의 모든 신들을 모조리 없애 버린 불타는 복음 전도자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는 전체가 우상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그 어느 곳에서도 로마의 신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실망에 빠져서 좌절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실패자들을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불타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준 사건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네번째 가능성을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말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헌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살펴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보편적인 증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의 글을 인용해 보기로 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 : 1, 14).

우리는 또 다시 다른 문헌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 : 16~17).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골 2 : 9).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 : 13).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읍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연구 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교회가 처음에 직면한 이단이 가현설 영지주의(Docetic Gnosticism)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에서 “도세틱”이라는 말은 “... 처럼 보인다, 나타나다”를 뜻하는 헬라어 “도케오”(δοκέω)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스틱”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우월한 지식에 대해서 자만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노시스”(γνώσις)는 “지식”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 도세틱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우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도 깊고 심오하고 역

동적이었기 때문에 첫번째 이단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육신을 입은 자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유일하고 역동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A. D. 112년에 젊은 플리니(Young Pliny)는 로마령이었던 비두니아(Bithynia)의 총독이었는데, 그는 당시의 로마 황제이었던 트라얀(Trajan)에게 어떤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비두니아의 신전이 완전히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헬라의 신이나 로마의 신들 즉 쥬피터, 머큐리, 그리고 그 나머지 신들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신전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플리니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플리니는 헬라의 신전이 그렇게 비게 된 사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두니아 지방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들은 주일의 첫번째 날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는 하나님이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네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일으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 왔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나는 성전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큰 자가 여기에 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에게로 오라,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는 너희가 하늘의 구름 안에서 오시는 능력의 오른편에 앉으신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나의 피이며, 죄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일에 따라서 상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삶이다

예수님 자신 안에 있었던 존재와 그가 사셨던 삶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그의 존재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전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인간이셨고, 동시에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살펴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인격적인 완전한 사람들이었나를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과연 죄없고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까? 모세 자신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지만,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다. 그 이유는 나의 수치스러운 분노로 인하여 한 번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하여 명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지팡이로 내리쳤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그에게 가서 “당신이 죄없는 참으로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피와 전쟁으로 얼룩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세례)요한에게 가서 “당신은 죄가 없고 이상적인 사람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아래로 부터 온 자요, 그는 하늘로 부터 온 자라. 나는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당신은 이상적인 사람입니까?”라고 질문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인물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그러한 사람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작가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호머의 유명한 작품인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에 나오는 아킬레스를 살펴 보십시오. 아킬레스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

까? 아니면 오딧세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호머도 그러한 완전한 인물을 창조해 내지 못하였습니다. 버질의 작품인 『아이네이드』(Aeneid)에 나타나는 아이네아스(Aeneas)가 그러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버질도 그러한 인물을 창조해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스킬루스(Aeschylus)의 작품에 나타나는 아가멤논이 그러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스킬루스도 그러한 인물을 창조해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라 할지라도 거룩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신 주님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생애를 창조해 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대적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까지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롯 유다도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던 악한 강도 조차도 “이 사람은 잘못 행한 것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집행한 백부장도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하시고 독특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을 한데 모아 놓은 사랑 그 자체이었습니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머리돌입니다. 천문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의의 태양입니다. 빵을 굽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 있는 빵입니다. 은행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요함입니다. 생물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생명입니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수한 토대입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입니다. 교육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기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고 추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초 재배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샤론의 장미이며 계곡의 백합화입니다. 지질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넘어서 서있는 반석입니다. 재판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배심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입니다. 법률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상담자이시며 변호사입니다. 신문 기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거대한 기쁨의 밀려오는 기운입니다. 박애주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각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 있는 돌입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한 주인입니다. 정치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소망입니다. 학생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진리입니다. 신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창조자이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을 우리는 어디에서고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상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분을 창조해 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삶만을 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러자 파도와 사나운 폭풍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앓은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에 의해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너는 깨끗해 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문둥병자는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 삼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은 이것을 “호리조”(ὁρίζω)라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영어 단어 “호라이즌”(horizon)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평선”을 뜻하는 이 단어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호리조”라는 이 단어는 “선언하다”(한글개역, “인정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결의 영에 따라서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시고, 지적되시고, 뽑히셨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생애 가운데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그에게 와서는 “내가 종교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나폴레옹은 그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자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간단하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네를 믿게 될걸세.”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은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

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동료 순례자이시고, 우리의 벗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어둡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슬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에 어떤 어린 소녀 한 명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소녀의 가정은 매우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는 뇌막염에 걸리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 소녀가 그 병으로 인하여 곧 죽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어린 아이는 눈이 이미 멀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엄마, 점점 어두어져가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하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오, 착하지. 예수님은 밝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두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무서워 할 것이 없단다.” 예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몇 달 전 어느날이었습니다. 베일러 병원에 들리게 되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 자매가 그곳에 있는 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가 끝이 나자,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루 게리그(Lou Gehrig) 신경 질환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치명적입니다. 치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저는 목사님께서 저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 할 것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다른 가능성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지, 의사나 병원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매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그 문을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매님보다 먼저 내가 주님의 면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언제 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아니면 또 다음날인가? 하늘로 가는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못박힌 손이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는가라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 속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얼굴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황금 빛나는 태양, 은빛나는 달,
그리고 모든 별들이 그 빛을 발하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니.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정복자의 행렬을 앞세우시고 오실 때에,
전 세계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
그리고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리.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시며, 그는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